

教育講座

<17> 의료업계의 동향과 상품개발

日本 Konica 株式會社 醫用販賣事業部 課長

松本幸郎

특별발표

<18> 일반X선촬영에 있어서의 patient care

고려대학교의료원 안암병원 방사선과

김영환

최근에 patient care에 대해서는 많이 대두되고 있으나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공식과 같은 것은 없다. 따라서 상황과 사람과의 대응에 따라 틀려서 그 상황에 적합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, 이것은 영원한 과제로서 앞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.

Patient care에 있어서 방사선사는 환자를 마음으로부터 이해하고 환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불안감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실제 이행하므로써 의료현장에서 팀의료의 일원으로 높이 평가될 것이다.

Patient care는 실행해야 하며, 그 평가는 환자측에서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. 이런 점을 고려하여 실제 임상에서 X선촬영을 한 환자가 과연 편안한 상태로 검사를 받고 있는지, 또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지,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몇개의 설문을 앙케이트 조사로 하였다.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검토하였다.

X선촬영시에 환자와 검사자가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의 여부와 불안이 있을 경우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1991년 12월부터 2개월간에 걸쳐서 수도권에 소재한 몇개 종합병원과 보건소에서 일반X선촬영을 한 환자와 검사자를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한 결과는 표 1과 같았다.

응답자 827명 중에서 X선검사를 한 환자의 64.4%가 X선검사에 대해서 불안과 검사에 따르는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.

표 1. X선검사시 불안여부

구분	병원	보건소	계
불안감이 있었다	318(65.4%)	215(63.0%)	533(64.4%)
불안한 감이 없었다	168(34.6%)	126(37.0%)	294(35.6%)
응답자 수	486(100 %)	341(100 %)	827(100 %)